

요엘서

개역개정 일부 수정

1: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2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
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4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나서¹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너희는 통곡할지어다²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
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굶어 말
갈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8 너희는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를
잃고 베옷을 입은³ 처녀처럼 애곡할지어다 4
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0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슬퍼하니⁵ 곡식이 떨어
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 농부들이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통곡하라⁶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 포도나
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
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
움이 말랐도다 13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통곡하라⁷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⁸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라⁹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 “깨어” 보다는 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로 깨어나서로 번역.

2 “통곡하다”는 단어는 1장에만 3회 (5, 11, 13) 등장한다. 통일성을 위해 “통곡하다”로.

3 “하리피를 찢라매다”라는 의미로 베로 동이고라고 번역이 가능하나, 이는 베옷을 입는 것을 뜻하기에
13절에도 통일하게 베옷을 입다로 번역한다.

4 “처녀로 말미암아 굵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는 어순이 히브리어의 비교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5 “마르니”라고 의역이 가능한 이 단어는 본문에 반복되는 애곡, 애痛的 언어군을 볼 때나 본래의 뜻인 슬퍼하다(mourn),
애도하다(lament)가 더욱 적절. 하고 9절에 제사장에게도 적용되었다. 반면, “말랐다”는 단어는 실제로 포도주(10),
포도나무(12; 시들었고), 모든 나무(12; 시들었으니), 사람의 즐거움(12), 곡식(17; 시들었고), 시내(20)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6 8절, 11절의 명령문에서 개역개정의 “너희는”를 뺐다. 모두 명령문으로 불필요하며, 절박성을 약화하기 때문에.

7 본문에 나오는 울라, 통곡하라는 단어는 점층 되는 것을 보여주기에.

8 13절에 개역개정은 “너희”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는데(14절에도 1회), 이 명령문은 동사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급박성, 절실성을 나타내므로 너희를 생략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적절하다.

9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는 한 단어로,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새다의 뜻이다.

14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
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¹⁰ 15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
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
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
였느냐 17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18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 떼도
괴로워하도다 ¹¹ 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
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 들짐
승도 주를 향하여 혈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질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
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
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
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6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낮빛이
창백해졌도다 ¹² 7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 서로 ¹³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접전을 벌이면서도 대오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¹⁴ 9 성에 돌진하여 성벽을 타고 오르며 ¹⁵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
그들 ¹⁶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니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도다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¹⁷ 누가 견뎌내랴 ¹⁸ 12 “그러나 이제
라도” ¹⁹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도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
라” ²⁰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그가 ²¹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
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0 명령어가 반복되고 있어서 단문으로 각각 번역하는 것이, “~고”로 번역하는 것보다 좋다.

11 “괴로워하도다”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한 단어는 죄를 범하다, 유죄로 판결받다, 형벌을 당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여기에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괴로워하도다 라고 번역.

12 “하얗게졌다”로 개역개정이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붉음을 뜻하는 것. 나훔 2:10에서도 빛을 잃다로 번역.
창백해졌다가 적절한 의미. 구약에 2회 사용된 단어.

13 “피차에”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인 서로를 택함.

14 “무기를 들고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는 무기와 무기가 부딪치는 접전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군의 대오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준다.

15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는 성을 포위하여 성에 사다리를 놓고 돌진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6 개역 개정의 “그”는 모호한 번역.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를 구체적으로 가리킨다.

17 문장을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해, 지르시고, 강하니, 두렵도다를 지르시니, 강하니, 두려우니로 번역.

18 “당할 자가 누구랴”의 동사는 감당하다의 의미.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 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16 백성을 모으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라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낱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게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18 그러면 ²²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질투하듯 사랑하시어 ²³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나리라” ²⁴ 진실로 그가 큰일을 행하실 것임이라 ²⁵ 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임이라 22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도 이룬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

리니 이룬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종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28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리라” ²⁶ 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 ²⁷ 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살아남은 자 중에 여호와와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19 매우 중요한 단어가 개역개정에서 빠졌다. Yet even now (NASB, NRSV), Even now (NIV)와 같이 영역본들은 모두 이를 반영하여 번역.

20 여호와와 신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다듬었다.

21 “주께서”라는 번역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뜻하는 듯 오해를 줄 수 있다. 같은 뜻이지만 원문에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로 표현되었으므로 단순히 “그가”가 적절.

22 접속사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시간을 특정하기보다 조건적 전제를 뜻하는 “그러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

23 시기하다. 질투하다는 의미로 “중심이 뜨거우시며(개역)”, “극진히 사랑하시어(개역개정)”, “마음 아파하시고(새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조금 거칠더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그대로 살려 번역한다.

24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25 22절에도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은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어 문맥에 따라 시제를 부여할 수 있는데, 18절의 조건적 접속사로 볼, 조건적 미래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26 여호와와 말씀과 선지자의 해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27 개역개정에서는 “나 여호와”가 32절에 2번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본문을 여호와의 신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원문에서 여호와를 대상으로 보고 있지 주체로 보고 있지 않기에, “나”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

3:1 “왜냐하면,²⁸ 보라 그날들과 그때²⁹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2 내가 모든 나라들을³⁰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백성을³¹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 또 나의 백성을 제비 뽑아³²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아³³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5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6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7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모든 용사를 격려하고 그들로 올라 오게 하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라 11 사면의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여라³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 “민족들은 일어

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14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이 있음이로다 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³⁵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가³⁶ 되시리로다 17 “그때에³⁷ 너희가 나는 내 산상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되고³⁸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예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를 린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갚아 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³⁹

28 원문의 접속사를 왜냐하면으로 번역하여 삽입하는 것은 문장으로서는 매끄럽지 않지만 2장과 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NASB도 For behold, NRSV는 For then 으로 번역.

29 원문에 그날들과 그때가 함께 등장하며, 그 기간과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

30 “만국”으로 개정개역에 번역된 이 단어는 민족, 국가, 국민, 백성 등 어느 특정한 단체, 무리, 조직체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현대적 국가 개념과 다른 고대의 개념이어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나라’라고 번역한다.

31 개역성경은 “이스라엘”을 불필요하게 덧붙였다.

32 “내 백성을 끌어 가서”는 원문의 “제비를 뽑다”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

33 개역개정이 “사방아”는 “모든 영토/지역”을 뜻한다.

34 9-11절의 동사들은 모두 명령형이다. 개정개역은 반복해서 “너희는”을 사용하였으나, 명령의 급박성을 전달하기 위해 원어에 없듯, 명령어만 나열하였다.

35 “목소리” 보다는 큰 소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

36 피난처와 함께 안전한 장소나 방편, 또는 보호자를 뜻하는 단어로 “요새”로 번역하는 것이 “산성”보다 적절.

37 와우 계속법으로 “그때에”로 번역한 새번역이 더 적절하다.

38 완료형으로 미래에 “거룩한 곳이 될 것”을 의미한다.

39 “거하다”는 본사로 앞의 “갚아주리니”와 같은 주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나”를 첨가하여 “나 여호와와...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한다.